

책속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방향을 알려줄게 첫째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적으며 낯선 일기오의 마음의 거리를 당기는
거야. 둘째, 어른들은 눈이 침침하니까 못읽게 글씨를 깨알처럼 작게
쓰는 거야. 셋째, 친구들과 일기를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 보.
그러면 일기가 더 친한 친구를 만들어주는 돌다리라고 생각하게 될거야. 꼭 나의
비법을 실천해서 내가 일기를 최고의 친구로 만들었으면 해.

동민아, 나는 너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친구처럼 여기니 내가 응원해 줄게
그만 안녕!

2020년 8월 16일 일요일
너와 친구가 되고 싶은 소편이가

안녕하세요
이소민입니다

이소민입니다

이소민입니다

이소민입니다

이소민입니다

이소민입니다

이소민입니다

이소민입니다

이소민입니다

